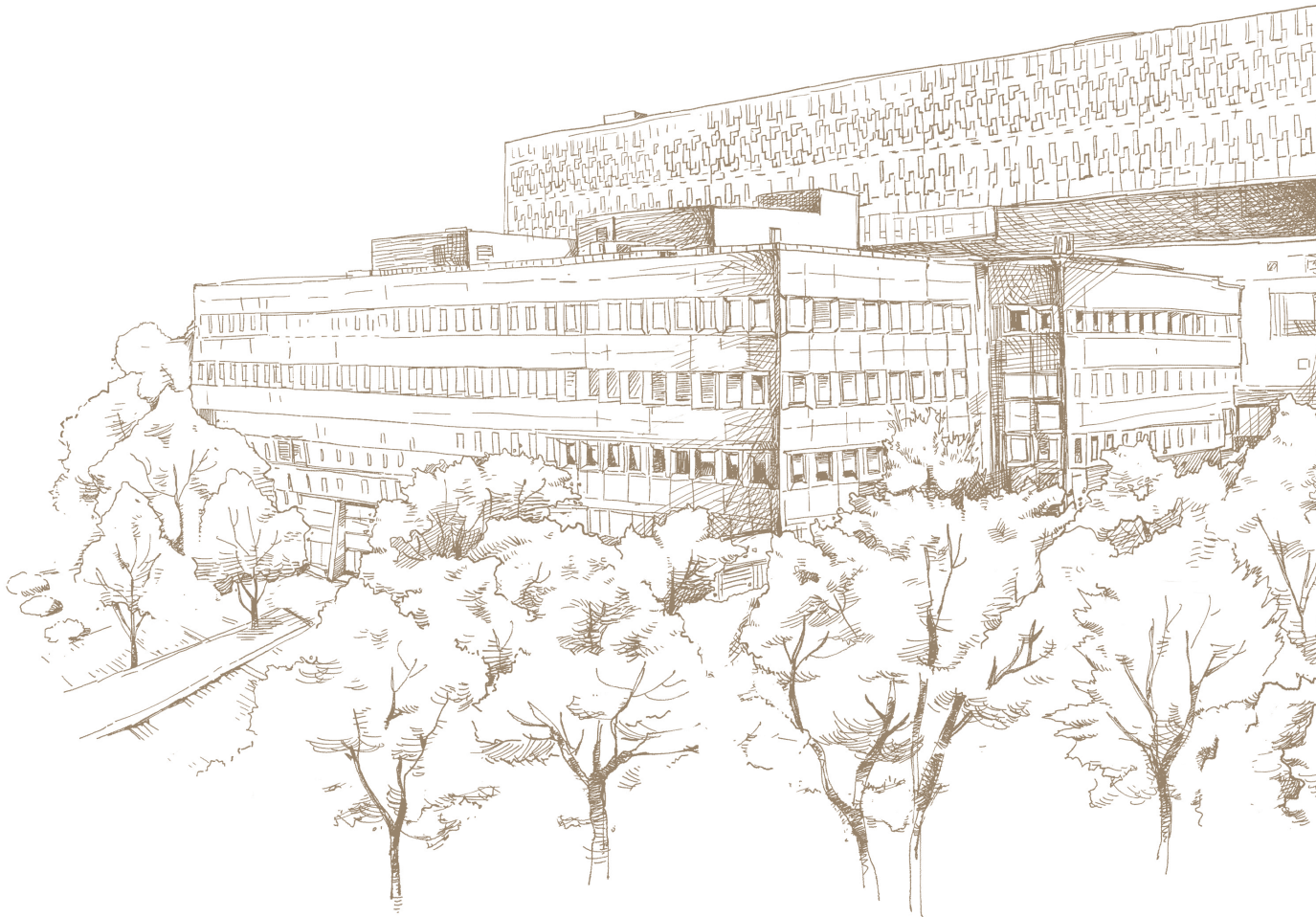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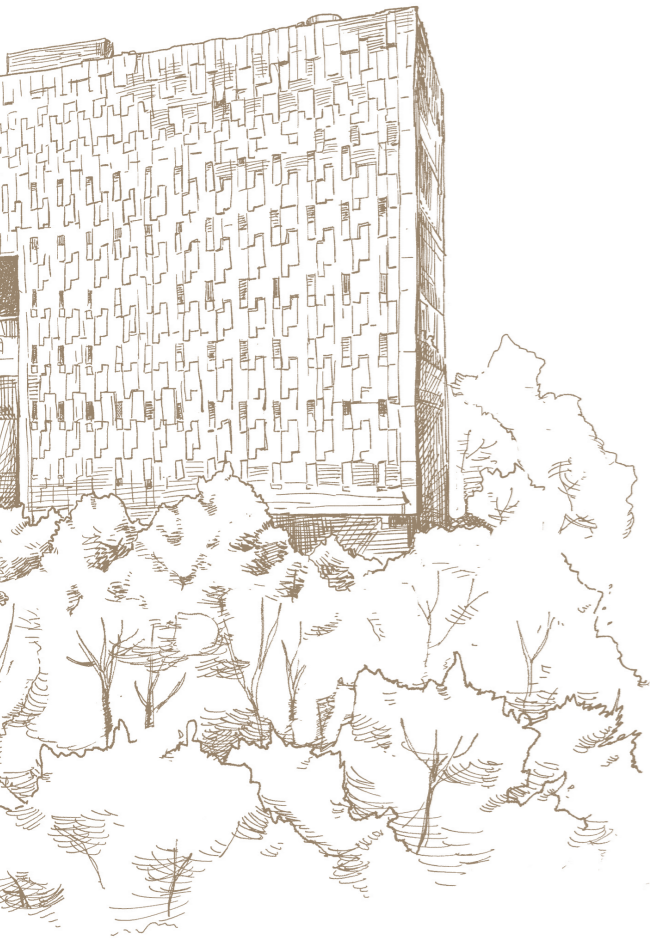


FRIENDS OF THE SNU LIBRARY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소중한 나눔을 함께해 주세요





도서관 친구들 이야기	2
중앙도서관 이야기	4
미래의 중앙도서관	8
층별 공간구성 & 기부자 예우	12
중앙도서관장 인사말	14
기부자의 한마디	1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내일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1975년 개관 이후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소중한 산실이었던
중앙도서관이 오랜 세월 속에 많이 낡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간 조성 및 시설 보완이 절실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와 일꾼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이 내일의 대한민국 인재를
키워내는 희망이자 원동력입니다.

서울대의 영혼, 중앙도서관

졸업을 앞두고 대학생활을 돌아보니 대학생활의 절반 이상을 중앙도서관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학우들보다는 도서관을 좀 더 잘 안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정문의 “샤”구조물을 서울대학교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중앙도서관은 우리 대학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책을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북카페입니다. 북카페의 신간도서 코너에서 한 권의 책을 들어 책장을 한 장 넘기는 순간 다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책은 또 다른 책으로 인도합니다. 중앙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없기에 걱정하지 않고 새로운 책을 만나러 갑니다. 3층 서가에서 책을 몇 권 대출하여 집으로 가는 셔틀버스에서 종종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이번에는 어떤 책을 빌렸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좋아하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과 저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마음 사이를 오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대학생활을 돌아보니 이렇게 읽은 책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나침반처럼 저를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읽은 책의 높이만큼 꿈꾸고 성장했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 이제 세월이 흐르며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비록 도서관의 외관이 낡았더라도 내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졸업한 후에도 중앙도서관이 그 자리에서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 · 인문대학 철학과 17학번

끝없는 지식의 바다로 출발하는 항구다.

진종원 · 철학과 대학원생

원고지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나의 미래가 빼곡히 담기는 곳이다.

이에진 · 사회학과 대학원생

나에게 도서관은

과거 선배들의 학문 탐구의 발자취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

심재은 · 화학부 학부생

내 인생의 베이스캠프

진동영 · 농경제사회학부 대학원생

지식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나에게 갈 길을 밝혀주는 반짝이는 등대

한현진 · 보건학과 대학원생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내가 만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곳

배가은 · 정치외교학부 학부생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간

이종아 · 사회교육과 대학원생

삶의 미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나침반 같은 곳

송유진 · 임상의과학과 대학원생

도서관은 지식의 나들목이다. 여러 갈래의 지식이 교차하는 곳에서 항상 나를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최민철 · 화학생명공학부 대학원생

어떠한 의미인가요?

도서관의 책 냄새는 저를 설레게 합니다.

저에게 도서관은 새로운 모험으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조혜진 ·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가슴 들뜨게 하는 보물섬. 빈 가방에 읽고 싶은 책을 찾아 가방을 짊어 올 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곳

안효석 · 식품영양학과 학부생

푸르른 20대 시절의 잊지 못할 풍경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저에게, 중앙도서관은 그야말로 보고(寶庫)였습니다. 입학하고 처음 도서관을 들어섰을 때 서가에 끝없이 꽂혀 있던 책들을 보며 ‘졸업 전까지 이 책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책 분류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들고 미로처럼 자료실을 다니며 책을 찾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었고, 낡은 책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도 좋았으며, 열람실은 낡았지만 푸근했습니다.

재학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특히 행정고시를 준비할 때에는 매일 출근하듯 도서관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면 해가 중천을 넘어 어둠이 짙어질 때까지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고, 말을 섞은 적은 없어도 매일 보는 얼굴들이 친근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열람실에서 서로 응원하며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도서관을 둘러싸고 펼쳐진 아름다운 관악의 풍경은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중앙도서관은 푸르른 20대 시절의 잊지 못할 풍경이고, 미래를 위한 자양분을 아낌없이 내어 주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중앙도서관이 많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배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하은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11학번

우리와 함께했던

서울대 중앙도서관

1946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경성대학의 건물과
도서를 이어받아 연건캠퍼스에 도서관을 개관

1975

관악캠퍼스 이전에 따라 지상 6층,
연면적 30,506m²의 '서울대학교 도서관' 개관

2012

서울대학교 도서관 신축 기금 모금 캠페인 추진으로
600억 원 확보, 관정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2021

다시 5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650억 원 규모,
4개년 계획으로 중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

1949

명칭을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변경

1992

명칭을 다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변경

2015

연면적 27,245m²의 중앙도서관 관정관 개관으로
시설노후·학업공간 부족을 보완

2025(계획)

관악캠퍼스 이전 50주년을 기념하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PAST

과거를 만나는 곳

1975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이전에 따라 중앙도서관은 지상 6층, 연면적 30,506m²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당신의 꿈과 미래를 향한 도전에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열정이 어려 있는 열람실에서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책에서 이름 모를 선배가 남긴 자취를 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진리의 고목 아래에서 우리의 청춘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도서관은 항상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우리의 박학다식한 친구로,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진정한 친구로, 드넓은 지식의 바다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별입니다.

46년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온 중앙도서관은 세월의 무게로 점점 노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곳

중앙도서관은 650억 원 규모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4개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래의 중앙도서관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북카페와 같이 다양한 좌석에서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충”

지리학과 20학번 권수진

“서가 간 거리가 너무 좁아 이동이
어렵고 미로 같아 길을 찾기 어려움,
쾌적한 서고 환경으로 개선 필요”

국제대학원 21학번 전해리

CREATIVITY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자라나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구성



IMMERSION

진리탐구를 위한 사색과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몰입 공간 조성



카페형 열람실

편안하고 열린 연구·학습공간으로
카페형 열람실 (1층, 300석)을
구성합니다.

휴게 라운지

학습과 연구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휴게공간을 확충합니다.

노트북존

어디서나 노트북을 활용하여 학습,
연구할 수 있도록 각 층에 노트북존
(총 500석)을 마련합니다.

대학원 전용 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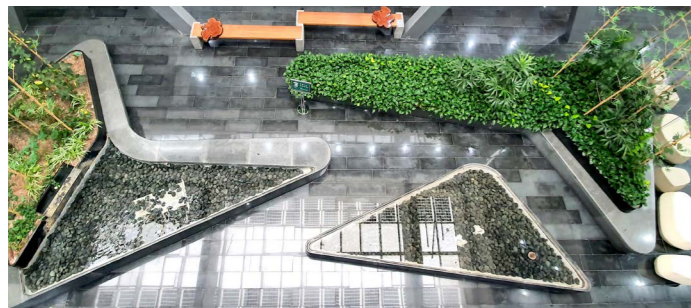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석박사 전용(비전임교원 포함)
대학원 열람실 (3층, 250석)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집중학습공간

학생들이 공부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24시간 열람실
Deep Quiet Zone (2층, 300석)을
조성합니다.

쾌적한 자료실

자료 열람과 연구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열람석과 사색공간인 서재
(7개실), 서가 간 간격 확대와 경계벽 해체로
쾌적하고 개방된 서고 환경을 구축합니다.



FUTURE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깊이 배우고 크게
꿈꿀 수 있는 공간”

사회학과 19학번 김다원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힐링이 되는 공간”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연구원 백성주

CONVERGENCE

학술자료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구축



복합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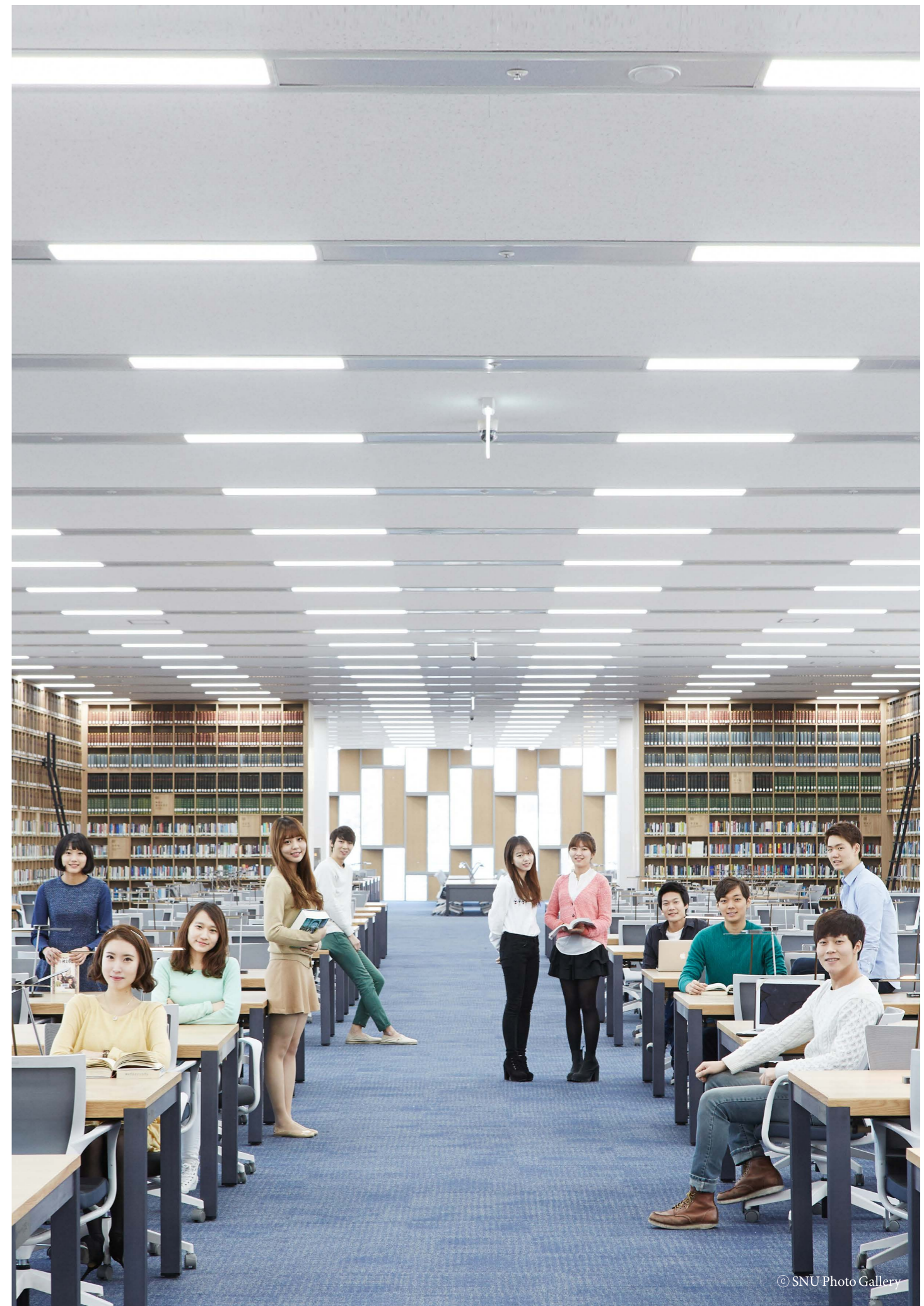
저자 초청 북콘서트, 전시회, 국제행사 등
문화와 지식이 공존하는 SNU창의마루
(3층, 300m² 규모), 북카페(4층, 700m²
규모)등의 융복합 공간을 조성합니다.

최첨단 회의실

각종 학술세미나, 학내 중요 회의
개최를 위한 최첨단 IT시설을
구비한 다목적 대형 회의실 (6층,
100석)을 구축합니다.

통합형 보존서고

최신 향온습습 시설과 모바일
설치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자료 보존 공간 (1~2층, 1,400m²
규모)을 대폭 확충합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기금을 출연해주신 여러분의 이름을 도서관

기부자 예우

곳곳에 새겨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3F

창의
공간

대학원 열람실(250석) - 30억 원

SNU 창의마루 - 5억 원



6F

문화
공간

고문헌자료실 - 20억 원

대회의실(100석) - 20억 원

소회의실(20석) - 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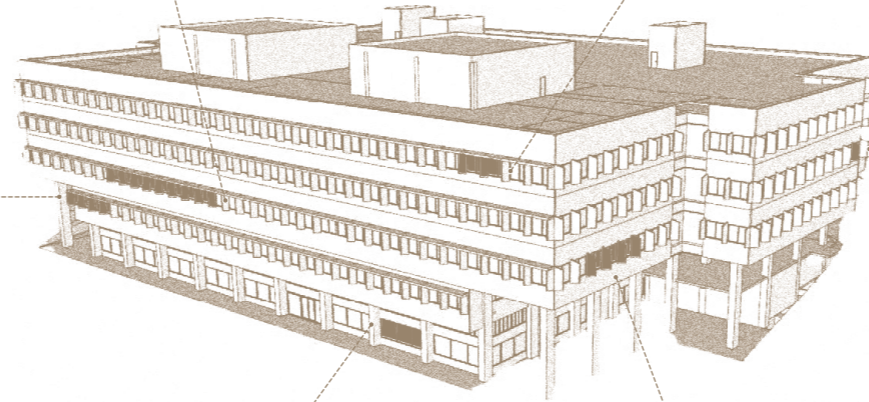


2F

사색
공간

24시간 열람실(300석)

- 3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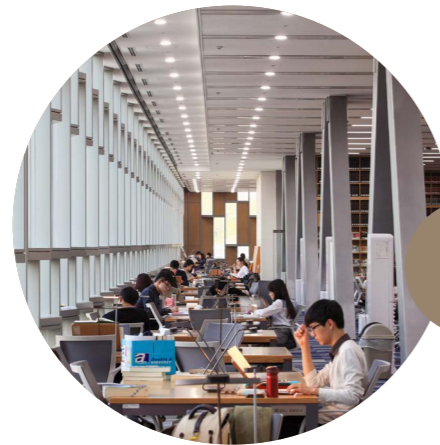
5F

지식
공간

자료실(규모별) - 5~20억 원

기부자 서재(4개실) - 10억 원

자료 서가 - 1천만 원



1F

도전
공간

카페형 열람실(300석) - 30억 원

6인 열람테이블 - 500만 원

4인 열람테이블 - 300만 원

열람의자 - 100만 원



4F

융합
공간

북카페 - 20억 원

기부자 서재(3개실) - 10억 원

Reading Lounge - 3억 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젊고 활기찬 나라를 이룰 젊은이의 터전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온 힘을 다해 감당해온 자랑스러운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슬한 인재와 일꾼을 길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했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대학의 심장인 중앙도서관이 이 모든 성취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는 한 나라를 이끄는 역할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한 방향 모색이라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의 대규모 산불, 가뭄과 홍수, 폭한과 혹서가 보여주듯이,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위기는 인류의 으뜸가는 의제이며, 코로나19 대유행도 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취약한 사회집단에게 더 가혹한 피해를 입힘으로써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난이도 높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키울 내일의 인재들은 지구 생태계를 회복시킬 절박한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이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과학과 기술의 획기적 발전도 이뤄야 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낼 비전과 소통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키울 인재들은 국내의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빈곤과 사회적 갈등도 풀어나갈 세계시민적 소양과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의 인재들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975년 개관 이후 46년이 넘는 낡은 건물은 지어질 당시와 크게 다른 기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은 시대적 과제를 감당할 신선한 창의력, 발랄한 상상력, 따뜻한 공감능력을 키울 보금자리를 얻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장 김명환

소중한 뜻과 아름다운 나눔

중앙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소중한 뜻을 나눠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서관 친구들이 되어 아름다운 나눔을 함께해 주세요

나라나 기업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키웁니다.
우수한 학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국부 유출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 환 (관정이중환교육재단 이사장)

이번 기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도서관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문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故 조 천 식 동문 (정치학과 45입학)

서울대학교가 글로벌 역량과
도전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 두 석 동문 (독어독문학과 69입학)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주 경 숙 동문 [주홍점 · 홍계수 영애]
(법학과 72입학)

서울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
도서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故 고 광 선 동문 (토목학과 57입학)
양 남 주 여사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 모금, 자선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류 무 중 동문 (중어중문학과 53입학)
박 익 서 여사

서울대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서관 기금을
통해 후배들이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故 정 인 식 동문 (상과대학 58입학) · 박 숙 자 여사

지금 시대는 고도의 압축 성장이 끝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서울대의 훌륭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착한
리더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손 주 은 동문 (서양사학과 81입학)

나눔의 문화가 보다 더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서울대 학우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 용 재 동문 (자유전공학부 14입학)
우 희 중 동문 (치의학과 14입학)

서울대학교! 언제나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비상(飛上)하십시오. 당신들을 믿습니다.

2012. 03. 중앙도서관 신축기금 1호 기부자

* 일반회원인 한 청년이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모은 100만 원을
희사하며 보낸 자필 편지에서

소중한 나눔을
함께해 주실
도서관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온라인 약정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과
(02) 880-9374, 5285

이메일 libplan@snu.ac.kr
홈페이지 friends.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을 위해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눔을 함께해 주세요.
다시 50년의 새로운 도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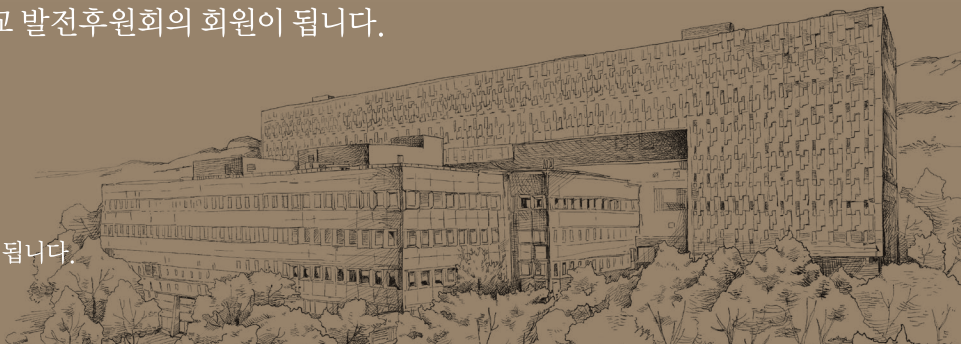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도서관 시설환경개선 기금 참여신청서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 문자,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1. 기본정보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양력 <input type="checkbox"/> 음력	년	월	일	
우편수령주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연락처	휴대폰		직장명		
	이메일		직장정보	부서·직위	
	자택번호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동문	학과 (특별과정)		학생성명		
	입학년도 (기수)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입학년도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부서·직위		학부(과)		

2. 약정정보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액후원 일금 ₩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년	월	일	-	년	월	일 (회분납)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일금 ₩	원		년	월	일	부터		정기 자동이체	
희망사용처	<input type="checkbox"/> 기관에 위임 (도서관 시설환경개선 기금, 원금사용)									
네이밍 (Naming)	네이밍 (Naming) 종류를 써 주십시오.									

3.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은행명	은행명	<input type="radio"/> 교직원 급여공제
농협 079-17-000136	계좌번호	카드번호	<input type="radio"/> 지로입금
신한 100-014-328209	예금주	유효기간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1006-601-280134	이체일 <input type="radio"/> 10일 <input type="radio"/> 25일	년 월	지로번호 7514340
		결제일 <input type="radio"/> 10일 <input type="radio"/> 25일	www.giro.or.kr

접는 곳

접는 곳



발전기금(접수)

Tel: 02-871-8004

Fax: 02-872-4149

MMS: 1666-2930

E-mail: snuf@snu.ac.kr

중앙도서관(모금상담)

Tel: 02-880-9374

E-mail: libplan@snu.ac.kr

Homepage: friends.snu.ac.kr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을 위한 예우

본관 리모델링 기금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기부자 명예 헌정 및 도서관 이용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		
	홍상/부조 제작	네이밍(Naming)	Donors Wall	도서관 시설이용편의	진료 예약	의전 서비스	종합건강검진 주선
10억 원 이상	○	○	○	○ (10년)	○	○ (10년)	○
1억 원 이상	○	○	○	○ (10년)	○ (기한)	○ (기한)	○ (기한)
1천만 원 이상	·	○	○	○ (10년)	·	·	·
5백만 원 이상	·	○	○	○ (5년)	·	·	·
1백만 원 이상	·	○	○	○ (1년)	·	·	·

*출연하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에서 확인)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필수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성명, 필수연락처, 필수주소, 약정금액, 납부방식(일시납, 분할납), 기금용도 지정,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신용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지로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선택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동문(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학생성명, 학생학부(과), 학생 입학년도), 교직원(부서), 기타, 우편물 수령주소 (주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 주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명, 부서, 직위

정보제공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기부금 납부 및 예우 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간소화서비스 확인)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도서관 시설환경개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